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중보

총기 48년
2019년 05월 1일

월간 발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 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 강남 라00944호 발행인 : 인선(강재훈)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3년 제 234호

종령 봉축법어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갑시다.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 참으로 거룩하고 기쁜 날입니다. 아기부처님께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고자 이 땅, 사바세계에 나투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고귀한 부처님의 탄신일을 맞이하여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과 이 땅에 오신 뜻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시며 동서남북으로 일곱 발자국을 걸으신 후 오른 손은 하늘을 향해 지켜들고, 왼 손은 아래로 땅을 가리키며 “천상천하(天上天下) 유아독존(唯我獨尊) 삼계개고(三界皆苦) 아당안지(我當安之)”라고 외치셨습니다.

이 탄생계(誕生偈)는 일체 존재가 모두 내가 있음으로써 가치가 있음을 설파하신 것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 존엄성의 일성(一聲)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탄생계를 통해 우리 자신들이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보다 소중한 것은 없으며, 나아가 일체가 모두 존귀한 존재임을 깊이 자각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이타의 정신이



요구되는 이유이며 일체가 자신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은 자신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 영위해 나가야 합니다. 수처작주(隨處作主) 입처개진(立處皆眞)의 가르침입니다. 머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지금 있는 그곳이 바로 진리의 세계입니다. 깨달음이나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의 육근(六根) 속에 있습니다. 몸과 입과 마음 가운데 진리가 있습니다. 삼염이 청정한 가운데 진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육근을 잘 다스리는 것이 곧 진리로 들어가는 문(門)이요, 자신의 삶을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도(道)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더라도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주체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진실하고 주체적이며 긍정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투시며 일체중생에게 설하신 교설의 바탕은 바로 ‘세상을 주인공으로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슬픔과 기쁨도 나의 것이요, 고통과 즐거움 또한 나의 것입니다. 최고의 행복은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김과 동시에 남을 위한 이타심(利他心)이 종국에는 자신의 행복을 위한 길이 됩니다. 자신의 마음가짐이 행(幸) 불행(不幸)을 좌우하므로 마음을 잘 써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모든 불자들이 행복의 등불을 자신의 가슴 속에 환하게 밝히고, 세상을 두루 비추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일체 번뇌와 고통을 멀리 여의도록 합시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광명이 충만하기를 서원합니다.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
불교총지중 종령 법공 합장

통리원장 봉축사

비로자나부처님의 따뜻한 시선으로 자비의 등불을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세상에 고통 받는 모든 존재들이 대일여래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 광명 속에서 편안해지기를 서원합니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 괴롭고, 힘든 날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원도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고 계시는 분들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흙 속에 연꽃처럼 고통을 이겨내고 조속히 희망의 터전을 되찾길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교도 여러분! 비로자나부처님께서 시작 없는 세상에서부터 무루법(無漏法)이라는 묘약(妙藥)으로, 생사의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모든 중생들을 치유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묘약은 저 멀리 나와 상관없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로 지금 여기서 보고, 듣고, 느끼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 있는 것입니다. 화내지 않는 마음과 웃는 얼굴, 온화한 말 한마디 속에도 묘약은 깃들여 있으며, 타인을 향한 따뜻한 시선 속에 비로자나부처님의 묘

리(妙理)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점점 각박해져 가는 세상 속에서 모든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관심은, 비로자나부처님의 사자(師子)로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정토(淨土)로 만들어 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진리의 법음(法音)이 온 세상에 울리고, 진리의 법등(法燈)이 온 세상을 밝히는 불국토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교도 여러분 가정의 평안과 이루고자 하는 모든 소원이 대일여래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력으로 성취되기를 서원합니다.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
불교총지중 통리원장 인선 정사

불교총지중 제 93회 춘계 강공회 개최

종령 법공 대종사,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당부

총기 48년 불교총지중(통리원장:인선정사) 제93회 춘계 강공회가 지난 4월17일, 18일 양일간에 걸쳐 총지중 본산 총지사에서 개최되었다.

전국 전, 현직 승직자들이 전례 모여 매년 봄, 가을 개최되는 강공회는 승단 의사 결정과 종령 강훈, 일반 교육 등을 시행한다. 금번 춘계 강공회는 오전 9시30분 중조전 참배대례를 시작으로, 서원당에서 금가사

수여식과 제19대 통리원장 취임식 후 개강 불사로 막을 열었다.

강공회는 종령 법공 대종사의 강훈을 시작으로, 불교총지중 밀교연구소 소장 법경정사(불사법요위원장)의 ‘불사법요 관련 교상과 사상’ 강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교상사상, 불공법, 수행관련 현실에 맞는 개정 논의가 밀도 있게 이루어졌으며, 시행은 정식 공문 발행 후 전국 사원에서 일제히

펼쳐질 계획이다.

이러 제142회 승단총회가 개최되었으며, 이 자리에서는 새로운 중앙총회의원과 사감위원을 선출하고, 종단 현안 설명과 함께 운영 방안에 대한 공유와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춘계 강공회에 앞서 4월16일 오전 10시부터는 원의회, 재단이사회가, 오후 2시부터는 제145회 중앙정기총의회가 개최되었다. (관련기사 3면)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축제, 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가 5월 4일 개막했다. 연등회의 백미인 연등행렬은 7시부터 동대문을 출발하여, 서울 도심을 환하게 밝혔다. 어울림마당 동참 대종을 비롯해 불자와 시민, 외국인 등 30여만 명이 줄로 일대를 가득 메웠다. 동참한 총지중 스승들이 흥인지문 앞을 환히 밝히고 있다.

종/조/법/어

부모님 낳아서 길러주시고, 부처님 모든 것 내게 주시니 그 은혜 세세생생 갚겠습니다

봉축연등접수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가득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접수처: 총지중 전국 각 사원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종령	법공 대종사
통리원장	인성 정사
중앙총의회 의장	수현 정사
중앙교육원장	화령 정사
사감원장	안성 정사

봉축 법요식

일 시 | 5월 12 (일요일) 오전 10시
장 소 | 총지중 전국사원

서울 연등축제 일시 5월 4일 (토요일) 장소 동국대학교

부산 연등축제 일시 5월 4일 (토요일) 장소 부산시민공원 잔디마당

불교총지중

우) 06227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
TEL 02-552-1080~3 | WWW.chongji.co.kr



조계종 중정 봉축범어

로 좋은 날이고, 일일(日日)이 행복한 날입니다. 모든 불자(佛子)들은 부처님께서 대자대비로 사바(娑婆)에 나투심에 환희찬탄하며 기도합니다. 나만이 아닌 우리를 위해 동체(同體)의 등(燈)을 켜고, 내 가족만이 아닌 어려운 이웃들과 자비(慈悲)의 등(燈)을 켜고, 국민 모두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희망(希望)의 등(燈)을 켜십시오. 우리 모두가 마음과 마음에 지혜의 등불을 밝혀 어두운 사바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또 다른 나라를 위해 광명이 되고, 이 사회의 등불이 됩시다.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발전으로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지만 많은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물질은 풍족하지만 더불어 가치전도(價値顛倒)를 낳았습니다. 물질우선의 가치관으로 갈등과 경쟁은 심화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과 좌절을 주지만 누구도 이 아픔을 보듬고 위무(慰撫)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은 배타적 종교와 극단적 이념으로 테러와 분쟁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원한과 보복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구촌의 진정한 평화는 어떤 무력이나 현란(絢爛)한 정치나 어느 한 이념으로

마야부인 태중(胎中)에서 출태(出胎)하시어 일곱 걸음을 걸으시고, 한순은 하늘을 가르치고 또 한순은 땅을 가르치면서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 나만이 홀로 높음이로다. 장하고 장하십니다. 우리 모든 인류시여! 함장예배를 올립시다. 그러나 자세히 점검컨대 다리아래 삼척이로다. 태중은 아시겠습니까?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바에 출현하심을 찬탄(讚嘆)하는 축제를 여니 이 얼마나 아름답고 경이롭습니까. 부처님의 차별 없는 자비(慈悲)로 일체중생을 교화(教化)하니 지옥문도 사라지고 유정(有情)들도 무정들도 법열(法悅)로 가득하니, 시시(時時)

진제 스님

써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인류는 개개인 스스로가 바깥으로 치닫는 마음을 안으로 돌이켜 자성(自性)을 밝혀야 합니다. 본래 나와 남이 둘이 아니며, 원래 옳고 그름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질인 마음은 찾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하루하루를 현상(現象)을 좇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육신(肉身)은 100년 이내에 썩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이들은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화두를 들고 오매불망 간절히 '참나'를 찾아야 합니다. 누구라도 마음의 고향에 이르게 되면, 나와 남이 없어지고 자연과 내가 하나 되어 온 인류가 한 가족이요, 온 우주가 한 몸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하면 처처(處處)가 극락정토요, 물물(物物)이 화상세계이니 자연히 대자유와 대인락과 대지혜를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불자와 국민, 그리고 온 인류가 참나를 밝히는 수행으로 지혜와 자비가 가득한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사회,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 갑시다.



조계종 총무원장 봉축사

도 그 밝음은 차별이 없기에, 백만등불은 백만억 국토와 천만억 중생을 밝힙니다. 이제 우리는 미세먼지의 안개그물을 걷어내고 생활폐기물로 오염된 수중세계를 살리기 위하여, 스스로 소비를 줄이고 소욕지족(少欲知足)하면서 절제(節制)의 등(燈)을 켜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태워 남을 밝히는 보살등(菩薩燈)의 심지는 더욱 더 돌우어야 합니다. 화쟁(和諍)이라는 장명등(長明燈)을 마당에 켜놓고 평화를 최고의 가치로 추구해 온 우리 민족은 오천년동안 이 땅에서 희노애락을 함께 했습니다. 사부대중은 천찰백년동안 같은 배를 타고 함께 노를 저어 고해(苦海)를 건넜습니다. 삶이 힘들고 험난할 때마다 일심으로 기도하고 어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후 일곱걸음 걸으시니 발끝마다 연꽃이 피어납니다. 낮에 핀 땅위의 칠연화(七蓮花)는 밤이 되니 하늘의 일곱연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일곱은 일천이 되고 일천은 다시 일만이 되더니, 어느덧 백만연등이 되었습니다. 한 등불이 다른 등불로 이어져 백만등불이 되어

원행 스님

려움을 함께 이겨냈으니, 이제 만년의 정토를 위해 공동체 구성원은 화합(和合)이라는 백만등불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화합은 우리를 불필요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편안함을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삼계가 모두 괴로움이니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하리라(三界皆苦 我當安之)'는 탄생계(誕生偈)를 함께 부르며,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편안함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정진하면서 백만원력(百萬願力)이라는 등불로 우리 국토를 환하게 밝힙시다. 우리도 한마음으로 사바에토(娑婆穢土)를 극락정토로 바꾸기 위해 언제나 이 자리에서 원력을 멈추지 않고 정진할 것을 삼보전에 서원하며 발원드립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봉축사

해중생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팔만사천의 청정한 길을 펼쳐 중생을 인도하시고, 구류중생의 면면이 그대로 부처임을 여실히 증명하셨으니, 오늘 부처님오신날은 일체중생이 지혜로 태어나고 자비로 일어서는 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행의 과도 속에 보리의 길이 있고 역겹 윤화의 고통이 열반의 실상임을 알리는 것이었으니, 그 가르침에 귀 기울이면 날마다 좋은날이요, 곳곳에 연꽃이 피어오를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밝히는 찬란한 연등은 시대의 고통을 소멸시키는 지혜의 빛이요, 우리가 세우는 불퇴전의 서원은 억조창생의 삼악도



오늘 좋은날 부처님오신날, 손에 손에 등 밝히고 마음마다 지혜를 밝혀 부처님 오신 뜻이 높이 기리고 대자대비의 가르침을 널리 전합니다. 부처님은 무량겁의 공덕을 무한생명의 실상으로 성취하시어 대연반의 기쁨을 고

문덕 스님

를 끊어 버리는 대자대비의 행원입니다. 우리는 한 순간도 게으르지 않게 부처님을 닮아가고 부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로만 불자이고 행실은 비불자인 이중적 삶을 청산하고, 살아 있는 대순간 철저히 부처의 말과 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두두물물이 진리의 실상임을 가르치셨지만, 정작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되돌아 볼 일입니다. 누구를 위해 아파하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 나를 희생할 수 있는지 자기 삶을 살펴볼 때입니다. 일체중생이 남김없이 열반에 이르도록 부처님 무량겁이 무궁무진 드리우기를 기원합니다.



천태종 중정 봉축범어

누리에 올리는 부처님의 사자후 자신이 만든 그림자를 쫓아 맴도는 안타까운 세월이라. 지금 내 앞의 사람과 일과 물건에 정성을 다하여 부지런히 공덕을 닦아야 하리. 강물에 뜬 달을 건지려 헤매지 말고 먼저 허망한 생각을 비우고 청정한 마음으로 선업을 닦으니 지혜가 드러나는구나.

도용 스님

부처님은 먼 곳에 계시지 않으니 자비로 바라보면 온 세상이 꽃동산이요 모든 생명이 부처님 나투심이라. 생명의 등불이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연꽃등 그늘 아래 조용히 합장하고 누리에 올리는 부처님의 사자후를 들네.

진각종 통리원장 봉축사

오늘은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입니다. 기록하고 좋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으며, 내일이 좋은 날이 되도록 정진합니다. 마음껏 자비로! 세상평화를! 불자들이 불기 2563년에 세우는 이 서원은 바로 보살의 마음입니다. 마음 가득 사랑을 담아 자비행을 실천하고, 세상만물을 사랑하는 염원으로 인류평화를 이루자는 의지의 표출입니다. 내가 먼저 실천함으로써 이웃과 사회, 국가, 인류가 더불어 잘 살기를 바라는 지



마음지리는 자비로 밝히고 행복은 지혜로 열여덟입니다. 가정도는 효순으로 지키며 세상은 평화로 채워갑시다.

회성 정사

극한 마음입니다. 행복은 안으로 자비를 실천하고 밖으로 지혜를 발현할 때 찾을 수 있습니다.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가 새로운 시작을 엿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을 동력 삼아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의 평화정착으로 누구나 행복을 누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도 부처님같이 가없는 지혜와 자비를 실천합니다.



진각종 총인 봉축범어

심인(心印)은 나에게 있는 부처님입니다. 깨달아서 실천(實踐)해야 하는 진리(眞理)입니다. 심인진리(心印眞理)로 자성(自性)을 밝히고 허물을 깨쳐서 고치면 원하는 바를 성취(成就)할 수 있습니다.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입니다. 안으로 나에게 있는 자성법신(自性法身)과 밖으로

회정 정사

삼계(三界)에 두루 차 있는 법계법신(法界法身)은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 저마다의 마음에 자성(自性)의 등불을 밝히고, 부처님오신날을 봉축(奉祝)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시다. 심인(心印)을 분명히 알아서 생활(生活)중에 깨닫고 참회(懺悔)하며 실천(實踐)하는 진각(眞覺)을 이룹시다.

정각사 득락전 헌공 가지불사

총기 48년 5월 24일 (금) 12:00

정각사에서 조성 중인 득락전 불사는 아미타 3존불과 1,315존 원불에 불자들의 염원을 담았습니다.

선망 부모, 조상 영식 왕생성불 발원불, 일체 소원성취 발원불로 재난소멸과 소원을 이루세요.

전국 스승 및 교도 동참 봉행

불교총지종 정각사



총지종 제 19대 통리원장 취임식 봉행 수행자 본분 충실, 승단 협조 당부



불교총지종 제 19대 통리원장 인선 정사 취임식이 지난 4월 17일 총지사 서원당에서 봉행되었다. 금번 취임식은 범공 종령 예하를 비롯한 전국의 스승과 교도 등 총지종도들만 참석한 가운데 외부 인사 초청 없이, 제93회 춘계 강공회에 앞서 각 교구지회장들과 신정회의 현화와 총지사 마니합창단 축가의 조용한 취임법회로 이루어졌다.

종령 범공 대종사는 취임 축하 법회에서 "오랜 전통을 깨고 연임이 되었다. 18대에 이어 19대까지 종무행정 연속성을 가지고 종단이 도약하는 발판이 되어야 한다."며, 3년간 총지종을 이끌 통리원장에게 "총지종의 위상을 높이고 교도

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단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통리원장 인선정사는 취임사를 통해, 창종 50년사 발간과 종헌종법 개정, 신규 교화지 개척 등 종단 재도약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원만히 다 이뤄지려면 무엇보다 우리 승단의 스승님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수행자로서 성직자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다른 소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의 본분이 성직자이고 수행자이기 때문입니다."며 신임 통리원장으로서의 다짐을 밝히고, 승단의 협조를 당부했다.

종령 범공 예하, "빨래는 잘 되셨습니까?" 총지종 전국 서원당, 상반기 49일 불공 회향

전국 서원당에서 지난 2월19일 입재한 총기 48년 불교총지종 상반기 49일 불공이 지난 8일 일제히 회향되었다. 본산 총지사에서(주교: 원당 정사) 종령 범공 대종사는 회향 법문에서 이같이 질문하였다. "빨래는 잘 되셨습니까?"

범공 대종사는 49일 불공은 빨래에 비유하여, 불공의 참된 의미와 마음가짐에 대해 이같이 설교했다. "가벼운 빨래는 자주할 수 있지만, 큰 빨래는 날을 잡고 힘을 들여야 할 수 있습니다. 불공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개인 불공은 소소한 업장을 소멸하고, 업을 닦는 일입니다. 하지만 속죄로 지은 큰 업장은 시간과 정성과 공을 들여야 합니다. 49일 불공은 큰 빨래와 같습니다. 회향하는 오늘 여러분은 큰 빨래를 잘 마쳤습니까?"



이날 또 범공 대종사는 법문을 통해, 불공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현실 생활에서 현실을 남들과 다 같이 생활하면서 지혜롭게 성현의 길을 따라 가는 것이 부처님의 수행법임을 설하고, "하루 동안 행복한 새벽불공에 있고, 칠일 동안 행복한 자성불공에 있고, 한달 동안 행복한

은 월초 불공에 있듯이, 49일 불공의 회향은 수행자로서 더 오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며 법설집을 인용했다.

"부처님이나 성자가 입으로 말로 하는 것을 설법이라 하는데, 말로만 전하는 것만 아니라 눈빛으로도, 말이 아닌 여러 현상으로 전달하는 길이 있습니다. 법계에는 당체 법문을 통해 스스로 깨치게 해주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체험이 곧 법문이고, 나타나 보이는 현실이 곧 경전이 되기도 합니다. 불공으로 얻은 지혜로 행복한 삶을 보내시길 바랍니다."며 정진해온 교도들을 격려했다. 하반기 49일 불공은 오는 5월 28일 입재에 들어간다.

제142회 승단 총회 개최 사감위원, 종회의원 선출

제142회 승단총회가 지난 4월17일 통리원 반야실에서 현직 스승과 기로 스승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승단총회에서 우인 정사(화음사), 범일 정사(수인사), 서강 정사(시법사) 중앙총회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중앙총의회 추천으로 서령 정사, 남해 정사, 통리원장 추천으로 도우 정사, 덕현 전수가 사감위원으로 새로 선출되었다.

<새로 선출된 사감위원>



통리원 재무부장 덕광 정사의 종단 현황 설명을 시작으로, 교정부장 승원 정사의 종보 관련 설명이 이어졌다. 아울러 총기48년 수계법회는 오는 10월24일 봉행하기로 결정되었다. 금번 수계법회는 그동안 7년 이상 신도에게만 수계를 해오던 것을 10년 미만, 10년~20년, 20년~30년, 30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종도들의 가사를 구분하여 수여하는 수계법회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총무부장 원당 정사는 정각사 특약전 불사와 범성사 신축공사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오는 5월24일 정각사 특약전 가지불사를 봉행한다고 전했다. 또 부산 법성사도 현재 공정률이 90% 이상인 상황에서 5월말 완공 및 분양을 목표로 공사 중임을 공유했다.

<새로 선출된 종회의원>



통리원, 새 금가사 수여식 봉행 6대 4만 3밀, 총지종 교의 담아



불교총지종 통리원(통리원장:인선 정사)이 전국 스승 금가사 수여식을 지난 4월16일 오후 1시 총지사 서원당에서 봉행하였다. 춘계 강공회를 맞아 전국 스승이 한자리에 모인 이날 수여식에는

범공 종령 예하, 인선 통리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및 교도들이 동참 했다.

통리원 총무부장 원당 정사(총지사 주교)의 집공으로 봉행된 법회는 종령 범공 대종사, 인선 통리원장의 훈향으로 시작됐다. 불공은 3.7 의궤로 총지종 교세 발전과 범의수여 원만을 서원했다. 금가사는 종령 범공 대종사가 전국 현직 스승에게 일일이 직접 수여하였다.

종령 범공 대종사는 "가사를 어떤 천으로 했든 그 정신은 꼭 알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며, "특히 우리 수행자는 철저히 근검절약하고, 오직 수행으로써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마음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설교했다.

이번에 새로 제작된 금가사는 기존 가사 형태와 의미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가운데 장식인 '수나라'만 변경이 되

었다. 아울러 밀교를 상징하는 6대 4만 3밀을 가사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총지종 교의가 영원함을 담아내었다.

새 수나라는 궁중에서 사용되던 대삼작을 기본으로 하여, 종단의 교의 대강을 첨가하였다. 타원형 옥 3개는 3밀을 상징하며, 현직 스승은 황색옥, 기로 스승은 적색옥으로 제작되었다. 황색은 대일여래 부처님의 상징으로 '중생의 소원성취를 기원하고 올바른 불법의 길로 이끌어주는 스승'이란 뜻을 담았다. 적색은 '일평생 교화스승으로서의 삶에 대한 존경과 경애를 받은 만한 분'이란 의미로 기로스승을 상징토록 했다.

한편 금가사 가지불사는 이에 앞서 지난 4월11일 총지사 서원당에서 봉행되었다.

제 179회 원의회, 제 123회 재단이사회 개최 총기47년 결산안 심의, 재단 이사, 감사 선출

불교총지종 통리원 제 179회 원의회와 제 123회 재단이사회가 연석회의로 지난 4월16일 통리원 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통리원장 인선정사를 비롯하여, 집행부 및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총기 47년 결산안을 심의하고, 임기가 만료되는 재단이사회 재단 감

사에 대한 선출을 마무리 하였다.

새로 선출된 이사와 감사는 다음과 같다. △재단이사 원당 정사(통리원 총무부장 당연직), 덕광 정사(신임), 범경 정사(유임) △재단감사 도우 정사, 남해 정사

총기48년 제145회 정기총의회 개최 결산안 심의, 동해중학교 이사 추천

제14호 정기총의회(의장: 수현 정사)가 지난 4월 16일 통리원 반야실에서 열렸다.

총의회 의장 수현 정사의 개시 선언을 시작으로 총기 47년 통리원, 전당건설, 유지재단, 복지재단 결산안 심의를 마쳤다.

또 동해중학교 새 이사로 원당 정사와 도현 정사, 감사로 서령 정사와 도우 정사, 사외 감사로 조재환 현 감사를 추천하였으며, 4월24일 동해중학교 이사회를 통해 인준되었다.

강공회로 보는 스승님, 우리 스승님



1 총기 48년 4월16일
10:00 반야실 원의회와 재단이사회가 연석회의 시작. 종단 현황 파악 중인 지정 정사, 정인화 정사, 원당 정사.



2 13:30 신규스승 금가사 수여. 묘관(김진경)사무가 신규 스승으로 임용된다. 중앙교육원장 화령 정사와 묘관 전수.



3 14:00 제145회 정기총의회, 종의회장 수현 정사가 개시선언을 하고, 심의 안건에 대해 설명 중이다.



4 총기 48년 4월17일
09:40 금가사 수여. 키 큰 보현 전수 차레가 되자, 종령 범공 대종사와 통리원장 인선 정사가 함박웃음을 짓다.



5 10:00 제19대 통리원장 취임식. 총지사 마니합창단이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음성공양을 올린다.



6 10:50 강공회 개강식. 전국 기로 스승과 현직 스승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심동체 강공회의 시작을 선언하다.



7 11:40 종령 범공 대종사 강훈 시간. 전국의 모든 스승들이 일제히 정좌하여 몸과 마음을 다해 경청하다.



8 13:30 강공회의 꽃 범경 정사의 '교상과 사상' 강의 중. 열공 중인 지현 전수와 도우 정사, 토론 중인 스승들.



9 16:40 승단총회. 종단 최고 의결 기관인 승단 총회답게 총회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보여주는 스승들의 모습.



칼럼 지혜의 눈



법상인 전수의 總持法藏

정진

'정진 중에 특히 지족(知足)하는 마음을 내게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종조님께서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지족하는 마음은 분수를 지키고, 만족하는 것을 지족이라고 합니다.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이것보다 더 못하면 어떠하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늘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정진 중에는 헛된 욕심을 품지 않고, 지족하는 마음을 늘 견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칠일 정진은 먼저 탁(濁)하고 뒤에 맑아지는 법이라. 반드시 탐심에 대한 시련이 먼저 들어옴으로 지족으로써 이 시련에 속지 말고 극복하여야 칠일 후에 공덕을 이루게 되는 까닭이다.' 중생의 선한 마음을 해치는 가장 근본적인 세 가지 번뇌를 독에 비유한 것이 바로 삼독(三毒), 탐욕·진에(분노·노여움)·우치로서 흔히 '탐진치(貪瞋癡)'라 합니다. 탐은 좋아하는 대상에 대한 집착, 진은 탐과 짝을 이루는 것으로서 좋아하지 않는 대상에 대한 반감·혐오·불쾌 등의 감정입니다. 치는 우치(愚癡)라고도 하는데, 바른 도리에 대한 무지를 가리킵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하지 못하여 잘못을 저지르거나, 옳고 그름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잘못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진을 할 때에는 반드시 탐심(貪心)에 대한 시련이 먼저 들어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업 중에 탐심으로 비롯된 탐업(貪業)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탐심에 의해 업을 짓는 것은 바로 탁한 마음이 먼저 들어오기 때문이며, 지족으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지족으로 이겨내어 이를 극복을 하면, 그 본래의 업이 공덕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한자성불공에 반드시 공덕성취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종조께서는 스스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스스로 내고 계십니다. '시간 일찍 나오는 것이 공덕성취에 제일 좋은 방법이다.' 며 시간을 강조하셨습니다. 칠일 불공하는 기간에는 지각도 하지 말 것이며,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불공에 전념해야 할 것이며, 그만큼 정성을 드려 불공을 해야 공덕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정진중에 탐하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을 없애기로 힘쓰는 것은 무슨 뜻인가? 칠일정진은 특히 탐진치를 단제하고 인격을 완성하는 주간 공부라 되는 까닭입니다.

월초에 칠일을 정해서 불공을 하는 것은 인격의 완성을 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탐진치 삼독으로 인한 중생의 업을 범부에서부터 성현에 이르기까지 불공주간의 공부를 통해 탐진치를 없애는 것입니다. 수행을 통해 마음 받을 가

꾸는 공부 기간입니다. 불공기간을 통해 잘못된 습관을 바꾸고, 말이나 행동을 바꾸고 실천해보는 것을 중점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육바라밀은 보살이 되는 여섯 가지 덕목을 전부 요약해서 만든 것입니다.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어둠에서 밝음으로 건너가는 여섯 가지 덕목입니다. 육바라밀은 보시(布施)·지계(持戒)·인욕(忍辱)·정진(精進)·선정(禪定)·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 등의 여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인격완성을 위하여서는 초기 불교에는 팔정도(八正道)의 가르침이었지만,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의 수행법으로서 육바라밀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시와 인욕과 같은 대사회적인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육바라밀이 보살의 수행법으로 알맞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육바라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보시입니다. 즉 남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육바라밀 중 지계와 정진, 선정은 계율을 지키고,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지혜를 갖는 것으로 자기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덕목입니다. 보시는 남과의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필수불가결한 덕목입니다. 주고받는 일입니다. 인욕 또한 보시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는다는 뜻도 있지만 욕됨을 용서한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기

세에 대해서도 간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기나 칼은 강해야 하지만 인간관계, 대승적 관점의 섬세한 덕목이 유화선순입니다. 자비지혜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자비와 지혜만 구하면 안 됩니다. 늘 함께 가야 합니다. 수레가 아무리 좋아도 한쪽 바퀴가 제 구실을 못하면 온전히 움직일 수 없고, 새도 두 날개로 평행을 이뤄야 잘 날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더욱 적극적인 대승보살행이 가미되어야 합니다. 그 대승보살행이 바로 상구보리 하화중생입니다.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리타(自利利他)입니다. 자리타는 곧 대승보살행입니다. 오세대 제도(五世帶濟度)란 다섯 가구를 교화하여 불문(佛門)에 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공을 하고 정진을 할 때는 늘 용맹정진의 마음가짐으로 부처님께 발원하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공의 시작은 첫째 정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불자로서 부처님 언덕을 임하려면 성불을 친근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중생사에 있다가 깨달음, 즉 부처의 세계로 나아가는 최초의 인연은 성불에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셋째, 불공은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업장을 소멸하는 참회에는 이참과 사참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형상이 없는 방법은

불공, 탐진치 단제하는 인격 완성의 공부 '실천서원', 수행의 기본과 정신의 첫걸음

꺼이 받는다는 적극적인 뜻과, 모든 일에 대하여 희로애락함이 없고 동요됨이 없음을 말합니다. 부처님 당시보다도 복잡한 사회,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사회에 우리는 육바라밀을 이야기 합니다. 이 같은 가르침은 우리는 불공 때 연습하는 '실천서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인욕(忍辱)과 하심(下心)으로 진애심과 원망심을 없애고, 유화선순(柔和善順)과 자비지혜(慈悲智慧)로써 상구보리(上求菩提)하고 하화중생(下化衆生)과 오세대 제도(五世帶濟度)에 용맹정진(勇猛精進)하겠습니다.

실천서원에는 불교수행의 기본과 모든 수행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수행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인욕과 하심의 맹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인욕과 하심은 수행자가 지녀야 할 기본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욕하고 하심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떠한 수행도 원만하게 해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유화선순과 자비지혜를 통해 인간관계의 처

이참, 행동으로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을 사참이라고 합니다. 이참은 깨닫는 참회이며, 사참은 부처님의 법식에 따라 몸과 마음을 바쳐 발원하는 참회입니다. 우리의 업장은 물질로 치면 허공을 다 채우고 남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빠른 참회는 다라니를 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믿고 정진해야 합니다. '준해정엄경'에는 한 진언을 팔십만 번 이상을 해야 업장이 녹는다고 합니다. 매일 2천2백 번 이상을 해야 일 년에 팔십만 번을 해야 할 정도로 중생이 업을 짓기는 쉬어도 업을 녹이는 일이 그만큼 어렵다는 말입니다. 몸은 없어져도 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천으로 행동으로 죄업을 소멸해야 합니다. 몸에 익은 묵은 악습을 소멸해야 합니다. 불공을 통해 이생의 업장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원한건데 이 공덕이 널리 일체 미쳐져서 나와 모든 중생들이 함께 불도(佛道)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서원합니다.

빼앗긴 말과 생각, 그리고 정체성

"고유의 용어 지키는 일은 스스로의 정체성 지키는 일과 직결" "용어의 뜻대로 여법하게 시는 일이 용어를 제대로 살리는 길"

언어는 사고를 담는 그릇이고 사고를 표현하는 도구라고 한다. 특히 논리적인 생각은 말로 이뤄지기 때문에 언어는 사상의 자유에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식민지 민족에게 고유의 말을 빼앗고 쓰지 못하게 한 제국주의의 정책이 우연이 아니다. 외교권 박탈 같은 외적인 타격에 덧붙여 언어 빼앗기는 보다 내적인 근본적인 타격이라 할 수 있다.

고유의 언어와 용어를 지키는 일은 종교 영역에서도 정체성 지키기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불법승 삼보(三寶) 가운데 '부처님'이라는 용어 하나만 해도 불자들에게는 정체성과 귀의처를 제공한다. 시대에 따라 부처님의 내포적 의미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근본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봐야 한다.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수행에서도 언어가 중요하다. 간경·염불·염송 등 불교 수행의 대부분이 말과 연관돼 있고, 심선업/심약업에서는 4가지가 말과 관련된 정도로 말의 비중이 크다. 선불교에서는 말을 여인 경지를 강조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말을 완전히 폐기한다고 보다 말에 걸리는 폐해를 차단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소중한 불교 용어들을 하나씩 잃고 있어 경각심이 요구된다. 최근에는 불교의 상징과도 같은 '자비무적(慈悲無敵)'의 자비란 말이 남용되고 있다. 사랑을 앞세우던 종교에서 어느새 '자비하신 하느님'을 내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일찍이 창조주(God)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하늘을 숭상하던 우리 민족 정서와 가까운 하느님/하나님으로 한 것이 교세 확장의 원인이 되었다는 분석을 가버이 불 일이 아니다.

'장로(長老)'와 '전도사(傳道師)'는 오래전에 빼앗긴 불교 용어이다. 연륜과 덕망이 많은 스님들을 장로라고 하고 그런 분들의 말씀이 '장로계'라 하여 전해온다. 또 부처님의 유명한 '전도선언'에서 전도사의 어원을 발견할 수 있다. 특정한 맥락 속에서 생긴 용어가 그 맥락을 벗어난 곳에서 쓰이다보니 지금은 아예 불교와 상

관없는 용어처럼 치부되는 현실이다. 진리는 어떻게 불린다 해도 터럭 하나 변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열망하는 대자대비하고 지고지순한 큰 사랑을 자비라고 부르든 사랑이라고 부르든 무슨 차이가 있겠나, 실천이 중요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같은 대상이라도 부르는 용어가 달라지면 느낌이 다르게 다가 온다. 부처님의 경우도 보통 우리의 생각이나 언어를 초월한 분이라고 하지만 부처님을 가리키는 열 가지 명호인 여래 심호는 부처님의 다양한 특성을 드러내 준다. 부처님의 덕상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며 닮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데 미묘한 차이가 있다.

서로 다른 대상에 붙여진 이름이 같다면 혼동을 준다. 똑같은 용어라도 맥락에 따라 그 내용은 다를 수 있는데 용어가 같다면 자칫 차별성도 감취지고 만다. 관세음보살 같은 불보살의 자비와 창조주의 자비가 어떻게 그 뜻이 부합할 수 있는가. 사랑을 베푸는 여락(與樂)의 자(慈)와 아픔을 덜어내 주는 발고(拔苦)의 비(悲)는 자타불이(自他不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창조주와 피조물이 엄격히 구분되는 곳에서 그게 가능한 일인가.

인도에서 불교가 무너진 것은 고유한 특성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힌두교가 불교의 교리와 문화를 흡수해 버리니 불교는 독립적인 위상을 잃고 소멸의 길을 걸었다는 이야기다. 고유의 용어를 지켜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불교계는 불교의 보편타당한 진리로서의 보편성을 바탕으로 그 위에 꽃피운 종교로서의 특수성을 잘 가꿔 나가야 한다. 용어의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 용어의 뜻을 살리려면 무엇보다 용어가 가리키는 뜻대로 여법하게 살아야 한다.

김봉래(BBS불교방송 보도국 선임기자)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

관성사

주교 | 인선
02-736-0950

밀인사

주교 | 록경
02-762-1412

법천사

주교 | 법경
031-751-8685

벽룡사

주교 | 승원
02-889-0211

시법사

주교 | 서강
032-522-7684

실지사

주교 | 덕광
02-983-1492

정심사

주교 | 화령
02-491-6888

지인사

주교 | 승효제
032-528-2742

총지사

주교 | 원당
02-552-1080

종의회의장 봉축사

굳건한 의지로 부처님 가르침 실천



인주의로 남을 업신여기거나 생명을 함부로 해치는 폐해는 견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도덕성이 요구되는 많은 분야에서 불교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불자들은 굳건한 의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년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에 부처님께서 우리곁에 오셨습니다.

부처님 탄생계에서 "삼계는 모두 고통이니 내가 마땅히 안락케 하리라." 부처님께서서는 이 말씀을 일생을 두고 실천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나 대자대비로 중생들의 고통을 들어 주기위해 끝없이 중생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서는 "모든 존자가 존귀하다." 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개

우리들은 자신의 마음속 깊이 부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상실된 자아를 회복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선행을 실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수 있는 밝은 사회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밝히는 연등 하나하나가 모든이에게 마음의 등불이 되시길.

종의회의장 수현 합장

중앙교육원장 봉축사

동체대비, 무연대자의 정신을 살려야



지금이야말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더욱 빛을 발할 때입니다. 언제나 나의 마음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잘 관찰하여 탐진치를 제거하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 동체대비, 무연대자의 정신을 살려 나갈 때 진정한 불국정토가 실현될 것입니다. 나만 살겠다고, 나만 잘 되겠다고 신에게 빌고 이웃의 희생을 바탕으로 더 높은 곳으로 기어오르려고 해봐야 결국은 부질없이 악업만 쌓아갈 뿐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오신날입니다. 색신으로 몸을 나누어 무명의 중생들에게 만고불변의 진리를 드러내고 열반에 드신지 어언 이천여 년이 흘렀지만 중생들의 탐진치는 날로 치성하고 사회는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연을 정복하고 우주를 정복하겠다고 큰소리 쳐온 인간들이 제 마음 하나도 다스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과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나와 남, 나와 자연을 분리하여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 지를 우리는 환경오염을 통하여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오늘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다시 한 번 나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소외되고 억압받는 많은 이웃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 불자들이 황폐하고 삭막해져가는 이 사회를 구하고 지구를 아름답게 가꾸는데 앞장섭시다. 불국정토를 우리의 힘으로 일구어 나아갑시다. 불자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중앙교육원장 화령 합장

서울경인교구 교구장 봉축사

진리를 깨닫는 것이 참 행복이다



닫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생멸변화(生滅變化)합니다. 즐거움도 기쁨도 사랑도 미움도 영원하지 않으며, 목숨마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잠시 머물러 있다 사라지고, 변함 속에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고통과 괴로움마저도 무상(無常)합니다. 무상하므로 우리 또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다 너다'라고 고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모든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기를 서원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은 무명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중생을 무명에서 건져내오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중생의 고(苦)를 여의게 하고자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서는 무명에서 벗어나서 일체의 고(苦)를 여의게 하는 길을 일체중생들에게 일러 주셨습니다. 그것은 일체가 무상(無常)이오, 고(苦)이며, 무아(無我)임을 깊이 깨

우리는 살아 있는 동안 늘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말입니다. 우리는 좋은 방향으로 변해야 합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진리를 깨닫고자 행하는 것이 수행이며,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참다운 행복입니다. 옴마니반메흠 옴마니반메흠 옴마니반메흠

서울경인교구장 범경 합장

부산경남교구 교구장 봉축사

종지 굳게 세워 염송정진으로 깨닫자



는 것이며, 또한 종지를 굳게 세워 염송정진하는 길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오신날 모든 분들이 올바른 길을 가시어 탐욕과 분노 등 악의 불을 꺼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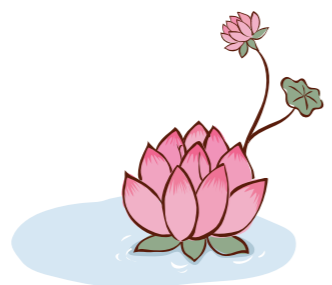
오늘, 부처님의 탄신일을 맞이하여 총지종의 모든 교도들이 부처님께서 열어 놓으신 진리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변함없는 신심으로 보살님들의 각 가정과 이사회, 이 나라, 더 나아가 온 인류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정진해 나아갑시다. 성도합시다.

부산경남교구 교구장 정인화 합장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보살님들의 가정에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이 충만하시어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서원합니다.

우리들은 분노도 악이고, 악의와 선망과 시샘도 악이며, 인색함과 탐욕도 악 일뿐만 아니라 위선, 기만, 오만, 교만심, 게으름도 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탐욕과 분노 등을 제거하기 위한 바른 길도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은 올바른 견해, 올바른 목적, 올바른 말씨,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태도, 올바른 노력, 올바른 의도, 올바른 명상이라



충청전라교구 교구장 봉축사

지심한 참회로 업장 소멸의 공덕을



있습다. 시기, 질투, 불행, 고통, 번뇌는 나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아뢰아식에 의존하여 마음자리에서 생겨 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자리를 깨닫고, 바꾸는 방법은 불교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인연법과 인과법을 증득하여 행복의 세상으로 나가는 방법을 설하시었습니다. 인연법과 인과법에서 현재의 나의 모습은 과거세로부터 지어온 업보의 결과요, 미래의 모습은 현재에 내가 지어온 업보의 결실입니다.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지심한 참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업장을 지심으로 참회하면 미래세는 반드시 업장의 인연이 소멸되고, 행복한 미래세가 펼쳐질 것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무시무중으로 지어온 자신의 업보를 지심으로 참회하여 업장을 소멸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두손 모아 간절히 서원드립니다.

충청전라교구 교구장 지정 합장

부처님께서서는 사바세계 중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나부셨습니다. 사바세계란 참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인욕의 세상, 잡된 인연으로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세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바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해 부처님께서서는 인연법과 인과법을 설하시어 무릇 고통 받으며 살아가는 중생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었습니다. 중생들의 고통은 잡된 인연들에 의해 생겨 납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인연 생기를 말씀하시면서 불행의 근본원인은 자기 자신의 관념에 의해 생겨난다고 말씀하시

대구경북교구 교구장 봉축사

끊임없는 자기성찰로 온전한 나를 지탱



로를 가다듬어 나가야 합니다. 온전한 나를 지탱하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성찰에 있습니다. 항상 나를 돌아보고 깊은 관찰을 통해 도덕적 성숙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사바세계에서 악업에 물들지 않고 선업을 지어 나갈 수가 있으며, 그것이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실천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모든 불자님들과 총지종 교도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비로자나부처님께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지혜의 말을 함께 나누어 가지며, 따뜻한 자비를 이웃에게 아낌없이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의 소유를 챙기는 자리에서 욕심과 탐욕이 일어나고, 반대로 버리는 자리에서 청정심이 일어납니다.

우리불자들은 항상 자신을 둘러보는 자세와 흐트러짐이 없는 계행으로 스스

대구경북교구 교구장 범상 합장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

관음사 주교 정인화 051-896-1578	단향사 주교 지홍 055-644-5375	덕화사 주교 법상인 051-332-8903	밀행사 주교 행원심 055-354-3387		
법성사 주교 법선 051-468-7164	삼밀사 주교 묘홍 051-416-9835	성화사 주교 금강륜 051-254-5134	실보사 주교 서령 052-244-7760	운천사 주교 정원심 055-223-2021	정각사 주교 도현 051-552-7901
일상사 주교 수행월 055-352-8132	자석사 주교 도우 051-752-1892	화음사 주교 우인 055-755-4697	동해사 주교 법선 051-556-0281-2		

불기 2563년 서울 연등회

“지금부터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연등법회를 사부대중이 함께 마음을 모아 봉행하겠습니다.”

5월4일 오후 5시, 불교 전체 종단을 대표한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정사의 연등법회 시작을 알리는 힘찬 개최선언과 총지교도를 포함한 사부대중 5만여 명의 힘찬 합성과 축포로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는 축제의 거대한 막을 열었다. 법회는 합창, 명종, 반야심경, 개회사, 경전봉독, 발원문, 기원문으로 이어졌으며, 행진선언을 끝으로 연등행렬을 위해 동국대 교문을 나섰다.

총지종은 서울경기교구 소속 사원들의 교도 300여 명이 손에 손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등불을 밝히고, 장엄물을 선두로 연희패와 풍물패의 앞선 길놀이를 따라 종로5가, 종로3가, 종각역을 지나 조계사까지 행진에 나섰다.



“어기여차, 달려 나가자, 마음愛 자비, 세상愛 평화 밝히자.”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

개천사

주교 | 법등
053-425-7910

건화사

주교 | 법상
054-761-2466

국광사

주교 | 혜안정
054-772-8776

단음사

주교 | 수현
054-333-0526

선립사

주교 | 도관
054-261-0310

수계사

주교 | 현일
054-745-5207

수인사

주교 | 법일
054-247-7613

승천사

주교 | 지선행
054-746-7434

제석사

주교 | 시정
053-743-9812



총지인 맞잡은 손에 비로자나부처님 지혜광명의 등불을!



총기 48년 연등회

부산 연등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연등회도 같은 날 오후 4시부터 부산시민 공원에서 함께 진행되었다. 총지종 부산경남교구 교도들을 비롯한 사부대중 2만여 명과 시민, 관광객이 운집한 가운데 전개된 법석은 육법공양과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보존회의 영산재, 관불의식, 봉축연합대법회 및 제등행진으로 진행됐다.

400여 명의 부산경남지역 총지교도들도 이날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 광명의 등불을 밝혔다. 동해중학교 학생 170여명이 앞장선 가운데, 각 사원의 명패와 장엄물을 앞세워 부산시민공원에서 삼전교자로, 서면로타리, 새싹로로 이어지는 제등행진을 펼치며 부산의 밤을 환하게 밝혔다.

이에 앞서 만보사와 백월사도 지난 4월 27일 (사)대전광역시불교총연합회가 주최한 대전시민문화 연등축제에 참여했다. 만보사와 백월사는 옴마니반메흠 쓰기와 만다라 색칠하기 부스를 열어, 시민들에게 총지종 흥포 및 참여의 재미를 주는 등 부처님오신날의 참의미를 알렸다.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

만보사

주교 | 안성

042-255-7919

백월사

주교 | 혜광

042-527-5470

법황사

주교 | 법우

062-676-0744

혜정사

주교 | 진일심

043-256-3813

흥국사

주교 | 지정

063-224-4358

중원사

주교 | 정정심

043-833-0399

밀교연재

『밀교문화와 생활』(28)

중생의 마음과 밀교수행 ②



법경 정사 (밀교연구소장/ 법천사 주교/ 철학박사)

의심(疑心)

지난 호에서는 중생의 60가지 마음 가운데 제1심에서 제7심까지 살펴보았다. 중생의 몸과 입과 뜻은 그 씽씽이에 따라 중생이 되기도 하고 부처가 되기도 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번호는 제8심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대일경』과 『소』에서는 제8심을 의심(疑心)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무엇을 들으면 대개 그것을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즉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 특히 불법(佛法)을 의심하고 스승을 믿지 않고 계마저 의심하는 것은 의심하는 마음 중에 가장 큰 의심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불자가 되려면 반드시 계를 받아야 하는데, 계를 의심한다는 것은 불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을 의심하고 스승을 의심한다는 것은 삼보(三寶)에 귀의하지 않고 삼보를 공경하지 않는 것과 다르다. 계를 받을 때는 삼귀의(三歸依戒)

를 제일 먼저 받는다. 그 이유는 바로 불법승(佛法僧)의 삼보를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삼귀의가 기본이며 근본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보를 의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불교에 귀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대일경소』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계를 받을 때 문득 의심을 낸다. 내가 지금 계를 제대로 받고 있는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와 같이 계를 받기를 의심하고 있다면 차라리 계를 받지 않는 것이 낫다.

수순(隨順)은 의심을 다스리는 길

이어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혹은 스승을 의심하고 법을 의심하는 등 여러 가지 사례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도를 행하는 데에 의심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하였다. 물론 학문(學問)이나 간화선(看話禪)을 행할 때는 ‘의심을 하라’ ‘의심을 버리지 마

라’고 말하여 수행이나 학문의 경적으로 삼고 있지만 삼보를 의심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자다운 자세가 아니다. 믿음의 종자를 싹틔울 수 없고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의심을 다스리는 길은 수순(隨順)이다. 불법(佛法)을 믿고 스승을 따르는 길은 수순 밖에 없다. 『대지도론』이나 『대일경소』에 이르기를, “비유하면 갈림길을 보고서 좋은 방향으로 따라가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의심을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즉 불법승의 선지식을 따르는 것이 수순이며 수순이 곧 의심을 다스리는 길이라는 것이다.

또한 의심을 버리는 길은 선지식으로 부터 여법한 가르침을 들음에 있어서 지심으로 받들어 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실천을 하는 데서 의심이 다스려진다는 것이다. 실천이 없기 때문에 의심만 일어나는 것이다. 실천하지 않는 자일수록 의심이 많은 법이다. 불법

(佛法)과 스승을 의심하지 말라. 수순하자. 실천하자. 이것이 의심 많은 중생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이러한 마음을 또한 암심(暗心)이라 한다.

암심(暗心)

암심(暗心)은 어두운 마음을 말한다. 치암(癡暗)고 같은 말이다. 즉 어리석은 마음이다. 치심(癡心)이라고도 한다. 무엇이 어리석은 마음인가. 그것은 진리에 어두운 마음이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無知)를 말함이고, 지혜가 없는 무명(無明)을 말하는 것이다. 즉 암심은 지혜가 없는 무명과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無知)를 말한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다. 앞의 의심과 유사한 것으로서, 특히 의심할 바가 없는 것에 대해 새로이 의심을 일으키는 것이 암심(暗心)이다.

『대일경소』에서 말하기를, “무엇을 어두운 마음(暗心)이라 하는가? 의심할

바가 없는 법에 대해 다시 의심하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른바 사성제(四聖諦)와 부정(不淨)과 무상(無常) 등과 같은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을 듣고서 마음에 주저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마치 밤에 나무의 밑동을 보고 갖가지로 억측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과 같다. 만약 이와 같은 모습을 스스로 분단면 어두운 마음이 시켜서 그런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암심은 곧 무지(無知)의 극치

어리석은 마음은 단지 진리를 모르는 것만이 아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무엇이 잘못인지조차도 모르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오, 무지(無知)의 극치다. 자신을 스스로 살필 줄 안다면 부끄러운 마음은 절로 일어나게 된다. 여기에 겸손과 하심은 자연스레 따르게 된다. 그러나 반대

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지혜 없음이오, 어두운 마음이며,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고집이 세지고 그로인하여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찬다.

또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의 말을 믿지 않고 남은 그르다고 비난하며, 오로지 자신의 말이 옳다고 고집부리는 사람들이 많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안하무인격으로 남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것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며, 진리에 어두운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또한 암심(暗心)이다. 그러나 자신을 여실하게 아는 것이 보리심(菩提心)이다. 이를 『대일경』에서는 여실지자심(如實知自心)이라고 한다. 여실히 자신의 마음을 아는 것이며, 또한 여실하게 자신을 아는 마음이기도 하다. 이것이 명심(明心)이며 보리심이다.

정성준 교수의 후기밀교

구경차제 중 자가지차제



정성준 교수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초빙교수)

원효는 『대승기신론』에 대한 소와 별기를 저술함으로써 여래장사상에 입각해 중생심이 불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주석하였다. 원효의 저술은 『대승기신론』을 통해 동아시아불교문화가 인도불교의 수행차제론을 계승한 사실을 보여준다. 『대승기신론』의 여래장은 공여래장과 불공여래장 두 가지가 있다. 불공여래장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보이는 붓다의 신변으로 그 예는 아미타불과 극락정토와 같이 붓다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수용신과 수용토를 나누는 것이다.

『법화경』의 『수기품』에서 보이듯 수용신의 붓다가 유정을 구하기 위해 정토를 시현하는 신변은 초기 대승불교시대에 제기 되었다. 불전문화 가운데 붓다의 공덕신에 대한 정승은 많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와 수행체계의 확립은 인도 후기밀교시대에 비로소 시작되었다. 대승불교의 유가행은 중생의 심식을 불지로 전환하고, 이때 유정의 삼유인생유, 중유, 사유는 순서적으로 화신, 수용신, 법신을 구축하게 된다. 자가지차제는 유정의 중유를 보신, 또는 수용신

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자가지차제는 절대적 공성의 경지에 머무는 붓다가 세속계의 몸을 나타내는 것이다. 환신차제라고도 말하는 이유는 승의의 공성으로서 무분별에 있지만 세속제로서 붓다의 신상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데바의 『자가지차제』에는, “장수와 무병, 수승한 안락과 신변을 성취하며, 범부의 재탄생을 그치고, 분별에 의지하지 않지만, 중생들의 육근에 의지해 신변을 생기한다. 여환(如幻)의 삼매에 의해 일체의 탐욕을 얻지만 일체법은 꿈과 아지랑이와 같

은 것이라고 제불은 설하셨다”라고 하였다. 즉 중생들이 육근에 의지에 의해 살아가거나 육신을 자기소유로 여기는 유신견(有身見)을 수용하지만 붓다들은 여환의 삼매를 통해 공성을 견지하는 것이다.

실제 수행에서 아사리는 제자인 유가자에게 붓다의 수용신을 성취하기 위한 인연으로서 관정을 내린다. 유가자는 아사리에 법을 설할 것을 권청하는데 이때 아사리는 금강살타로 간주한다. 자가지차제는 중유의 몸에 존재하는 육근을 수용하기 위해 틱레와 육근, 공성의 마음을 수지하는 3종자를 염송한다. 데바의 『현관보리차제』에는, “세존 비로자나에 의해 대담욕을 수용하는 이취의 자성삼매에 의해 만다라를 집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략의 상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대담욕을 수용한다는 말은 유정의 경계를 열반의 자성으로 수용한다는 뜻이다.

인도의 후기밀교 성취자 가운데 유명한 밀라레빠가 있다. 밀라레빠가 성취자가 되기까지의 긴 사연은 뱀갈의 도하문학으로 남겨져 오늘에 전한다. 스승인 마르빠를 만난 후 혹독한 고행을 강요한 스승에 대해 원망도 많았지만 나중에 스승의 진심을 이해한 다음 스승에 대한 감사와 그리움에 감격해 노래를 부르자 스승의 화현이 나타나 예전 하던 거친 말로, “지금 뭐하는 거냐? 미친 거야? 진실을 이해한다면 수행에 집중하라”라는 말을 남기고 화현은 사라졌다. 밀교의 수행은 신비롭고 이에 대한 민속이나 문학적 자취는 많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자가지차제』에서 유가자의 내면적 경지를 보이는 다음의 구절이다.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그는 불탐에 공양하지 않고, 경전도 독송치 않으며, 오직 자가지차제에 의지해 행위를 수습한다. 본존에게 예경하지 않으며, 승가에게 귀의하지도 않으며, (오직) 자가지

차제의 자성에 의해 일체에게 귀의한다. 진언을 염송하지 않으며, 수인을 집지하는 것도 이와 같다. 진언을 염송하지 않지만, 모든 색상을 현현한다. 색상의 현현함을 집지하지만 외계의 경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에 이처럼 ‘환과 같이’ 자신의 마음으로 본다.” 밀교는 의례를 중요시한다. 의례는 붓다와 아사리의 전승이 후대에 사라지지 않도록 전하는 간곡한 제이자 공성으로서 의례의 형식을 넘어 서야 한다. 승가의 테두리를 벗어났지만 일상적 삶속에 진언의 의례를 여법하게 수지하는 대자유와 형식을 넘어선 질서를 수지하는 것이 후기밀교시대의 아사리가 전한 가르침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총지정보 / 위드다르나
구독문의 | 총지정보실
02-552-1080~3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

서울 · 경인교구 신정회

지회장 | 김은숙
총무 | 김옥인, 양재범

부산 · 경남교구 신정회

지회장 | 황윤희
총무 | 신혜영, 조향선

대구 · 경북교구 신정회

지회장 | 최윤정
총무 | 김상필, 곽노선

충청 · 전라교구 신정회

지회장 | 민순분
총무 | 배정임

마니 합창단

단장 | 최해선

만다라 합창단

단장 | 이상록

금강 합창단

단장 | 곽노선

부림 합창단

단장 | 조정애

종합 동해중 소식

동해중, 학부모 총회 및 역점사업 설명회

양성 평등교육, 청렴한 교육문화 구현에 주력할 것



지난 3월21일 동해중학교 강당에서 학부모 총회 및 학교 역점사업 설명회에서 탁상달 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동해중학교(학교장 탁상달)에서는 지난 3월 21일 오후 2시 학교 강당에서 학부모 총회 및 학교 역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모든 교실의 6교시 수업참여를 시작으로 2018학년도에 수고한 각 분야별 학부모님들의 감사패 수여, 분

교 교직원 소개, 학교경영 방침안내 및 학부모규정 추진,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대책위원 선출 등의 행사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2019학년도에 학교에서 이루어질 학교의 중점사업 안내 및 역점사업에 대한 설명회도 있었다. 이번 행사에서 각 분야별 감사패는 학교 운영위원을 비롯한 학부모회 임원단과 어머니독서회 임원단 및 불교어머니회 임원단에게 수여되었으며, 선출직 학교운영위원으로는 이형주, 조진화, 추금량, 이영미, 유미, 이윤정, 명승굴 씨가 선출되었고, 학교폭력대책위원으로는 임현희 씨와 신은정 씨가 선출되었다.

학교정책 및 역점사업 설명회에서는 연간 학사일정 및 주요행사 안내를 비롯하여 2020년 고입전형 소개, 봉사활동 운영 계획 안내, 영어독서리더 학교의 운영방안 소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학교 안전 교육 및 인성교육 방향을 설명하였다. 또 학교경영의 내실화 방안으로 진로교육의 효율적 추진 및 건강하고 깨끗한 학교문화를 위해 청소년 흡연 예방교육과 가정폭력 예방 교육,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한 양성 평등교육 및 청렴한 학교문화 구현을 위해 학교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연수를 실시하였다.

종단협, '고려인 위령제' 봉행

우즈베키스탄 방문, 한국불교 소개도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스님, 이하 종단협)는 사무총장 지민스님을 단장으로 각 종단 스님들과 재가 종무원들로 대표단을 구성, 4월 5일부터 4월 11일까지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고려인 위령제'와 '고려인 한국문화체험문화제'를 열었다.

금번 방문은 올해 3.1절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 고려인 동포들과 함께하는 한국불교문화소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민족의 어려운 시기에 연해주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이주되는 과정에 목숨을 잃은 많은 분들과 어려운 정착기에 살다 고인이 된, 고려인 1~2세대 분들을 추모하는 불교 위령의식을 중심으로 현지 고려인 사회에서 조상을 추모하는 한식 주간을 맞아 진행하게 되었다.

4월 7일 11시부터 1시간 동안 타슈켄트 빅티미르 공원묘지에서 봉행된 위령제는 100여명의 유족과 관계자가 참여하여 진행되었으며, 고인들에 대한 추모묵념과 헌화, 그리고 현지 주지스님의 축문과 불교영반의식 및 사무총장(지민스님)과 유족대표(김류드밀라)의 추도사와 고인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묘각스님(미르중 총무원장)의 발원문 등 순으로 진행되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빅티미르 공원 묘지의 고려인 추모 위령제 모습

고려인 유족대표로 김류드밀라 씨는 추도사를 통해 "한국불교계에서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고려인묘지까지 방문하시어 1~2세대 선대 고려인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위령제를 진행하여 주신데 감사하며,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많은 교류를 당부한다"고 하였다.

또한, 당일 오후 진행된 한국문화체험에는 고려인 어린이들과 어른들 300여명이 참석하여, 동포들이 준비한 한국노래합창, 무용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선보였으며, 종단협 참가단이 준비한 문화부스에서 연등만들기, 한글이름쓰기, 문화재접기, 전통문양, 태극기부채 채색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울러 우즈베키스탄의 문화와 이슬람유적 등 이웃종교 성지순례도 함께 이뤄졌다.

단장으로 참석한 사무총장 지민스님(대한불교삼천종 총무원장)은 "고려인 동포와 과거 많은 불교유적을 간직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에 불교계의 보다 많은 관심과 교류증대가 필요하다." 며, 지속적인 사업진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종단협 이사 묘각스님(미르중 총무원장)과 조주스님(조계종 우즈베키스탄 자은사 주지), 해정스님(조계종 사회국장), 지혜스님(대각종 성주분원장), 도현스님(법상종 문수사대자원 주지)을 비롯한 협회 회원종단 포교사들 및 기자가 동행하였다. 우리 총지종에서는 통리원 유영신 교무와 부산 정각사 김부강 계장이 참여하였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유영신 교무>

역삼한담 "산불피해지역 성지순례 가는 것이 가장 큰 격려"

고성 속초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실, 자원봉사도 중요하지만 관광도 큰 도움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자연의 봄은 왔지만, 우리 마음의 봄은 아직 멀었다. 이 말을 가장 절절히 체감하는 곳이 바로 지금의 강원도 동해안이다. 지난 4월 4일 발생한 산불로 인해 1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하는 피해를 입었다. 인근에 거주한 4천여 명이 대피 했으며, 530ha에 달하는 산림과 주택, 시설물 총 916곳이 전소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이 와중에 불교계의 피해도 있었다. 속초 대표 사찰 보광사는 4월 4일 밤 11시부터 5일 새벽까지 7시간동안 이어진 산불로 인해 사무동 건물 1채와 창고 2채가 전소됐다. 여기에 사찰 주위의 소나무림 30%(약 2천그루)가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 또한 보관 중인 문화재급 아미타 괘불도와 근대기에 조성된 연가마도 소실됐다.

가능했다. 정부와 사회각계 그리고 불교계도 화재 직후 피해 지역 돕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조계종은 긴급 구호대를 급파하고 상황을 파악한 뒤, 속초 신흥사와 함께 구호 봉사를 진행 중이다. 신흥사의 경우 피해지역 구호에 집중하기 위해 속초 지역 봉축행사를 전면 취소하기도 했다. 또한 범종단 적으로 기금 모금에 들어갔다. 하지만 강원도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이맘때면 상춘객들로 붐빌 동해안에 인파가 평소 10분의 1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들에게 동해안을 찾아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글을 올렸을까 생각하니 안타깝다.

"재난지역에 놀러 가는 것이 흑시나 폐가 될까라는 조심스런 생각은 거두어 달라. 지금 최고의 자원 봉사는 관광으로 화재 피해 지역을 살리는 일"이라는 최 지사의 절절한 호소를 우리 불교계도 되새겨야 한다.

정부도 이에 맞춰 강원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피해 복원 계획으로 내놨다. 문화재청도 강원 산불 피해지역의 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문화유산 관광을 원하는 관광객이 피해 지역을 손쉽게 찾아 갈 수 있도록 '강원지역 문화유산 답사코스' 책자를 제작·배포한다. 또한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문화재위원회 회의와 담당자 워크숍, 교육 등 총 27회 가량의 행사를 강원도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9월까지 진행되는 무형문화재 공연과 중학생 대상 문화유산 교육도 강원 산불피해지역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관광객 감소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지역 방문을 요청하는 릴레이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속초·고성 지역 주민들은 이 캠페인을 통해 "산불로 많은 것을 잃었고 모두 부족하지만, 가장 부족한 것이 관광객"이라며 "관광도시 속초·고성에 많이 놀러 와주는 게 최고의 도움"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른 산불 피해지인 동해시도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며 지역 방문을 호소했다. 심규연 동해시장도 "주요 관광지 예약취소가 잇따르고 있다"며 "2·3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동해 지역을 찾아주

시는 게 가장 큰 지원이고 자원봉사"라고 말했다.

피해 지역인 강원도 고성과 속초에는 건봉사, 신흥사, 화암사, 낙산사 등 불교의 고찰들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다. 일반인들도 관광하기엔 손색이 없는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도량들이다. 우리 불교계부터라도 5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둔 안으로 갈 것을 두려워 보는 것이 어떨까. 동해안의 빼어난 정취를 느끼면서 수행 생활도 펼쳐며, 피해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는 1석 3조의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 "자리아타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갑작스런 화마에 집도 마음도 사커망게 타들 어간 우리 피해지역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 염주하나 손에 걸고 부처님 도량으로 떠나보자. 큰 도움이 된다니 많이 자주 가자. 실의에 빠진 우리의 이웃들에게 손에 차고 간 염주를 걸어주며 위로를 해주자.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참뜻이 아닐까.

<김주일=현대불교신문 편집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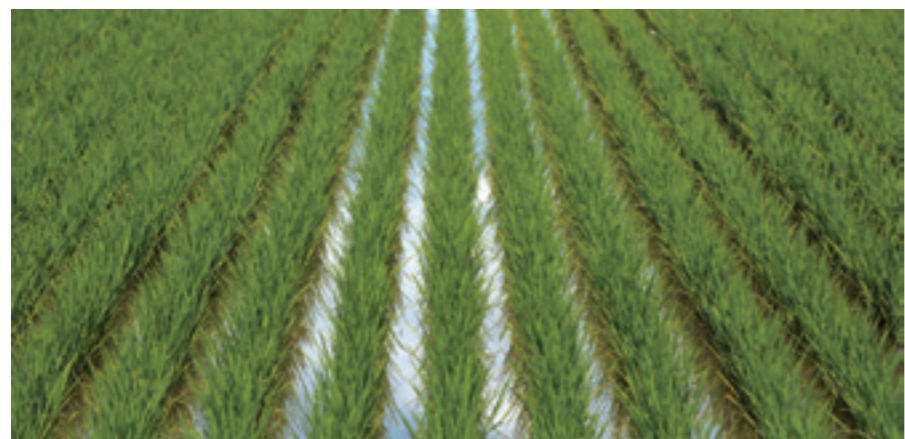
Large banner for 'Bulgi 2563 Year Buddha's Birthday' with school photo and list of staff: Director: Inseon Jeong, Principal: Tak Sangdal, Vice Principal: Song Ingeon, Administrative Director: Beomseon Jeong. Contact: Busan Dongrae-gu Sillso 19-39 (Myeongryong-dong) Tel. 051.555.4456



절기이야기

햇빛이 풍부하고 만물이 가득찬 '소만'

정각사 남해 정사



소만은 24절기 중 여덟 번째 절기로 양력으로는 5월 21일 무렵으로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차 성장하여 가득 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벼농사를 주로 짓던 우리 조상들은 소만을 모내기 시작의 기준으로 삼았다. 소만이 되면 보리가 익어가며 산에서는 부엉이가 울었다. 또한 이 무렵은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양식이 떨어져 힘겹게 연명하던 시기이다.

소만이 되면 이른 모내기, 가을보리 먼저 베기, 여러 가지 밭작물 감배기가 줄을 잇는다. 보리 싹이 성장하고, 산야의 식물들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모내기 준비를 서두르고, 빨간 꽃이 피어나는 계절이다. 모판을 만들면 모내기까지 모의 성장기간이 예전에는 40~50일 걸렸으나, 지금의 비닐 모판에서는 40일 이내에 충분히 자라기 때문에 소만에 모내기가

시작되어 일년중 제일 바쁜 계절로 접어들는다.

소만에는 바람이 몹시 차고 쌀쌀하다는 뜻으로 “소만 바람에 설늬은이 얼어 죽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초여름인 5월에 설늬은이가 얼어 죽는다니, 황당한 속담이 아닐 수 없다. 하나 이시기 아침에는 꽤 찬바람이 불어온다. 낮 기온은 30도에 육박하면서 동이 트는 새벽에는 온몸을 움츠리게 하는 추위가 스멀스멀 올라온다.

또한 “사월에는 소밭자국에 물만 괴어도 막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음력4월은 비가 적고 식물의 생장은 왕성하여, 곳곳에 일손을 기다리는 농사 가운데 물 가두기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뜻이다. 밀과 보리에 이삭이 패고 모내기 준비와 김매기로 바쁜 철이라, 농부들은 이른 새벽부터 까치들이 온 밭을 헤집고 돌아다니는 소리에 잠을 깨고, 낮에는 빠꾸기 울

음소리가 일손을 재촉하여 하루해가 금방 간다고 한다.

소만 무렵에 행했던 풍속으로는 봉선화 물들이기가 있다. 요즘은 봉선화 꽃잎보다는 문구점에 봉선화 물들이기 용품을 많이 사용하지만, 예전에는 봉선화가 피면 꽃과 잎사귀를 씻어서 찜은 다음 백반과 소금을 넣어 손톱에 얹고, 호박잎이나 피마자 잎, 형겔이나 비닐을 감싸 붉은 물을 들이곤 했다. 첫눈이 내릴 때까지 봉선화 물이 남아 있다면 첫사람을 이르게 해준다는 이야기도 있다. 봉선화 물들이기 이외에도 꽃보리를 몰래 베어 그슬러 밤이슬을 맞힌 다음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이야기도 있었으며, 풋참밀 이삭을 잘라 껍질을 벗긴 다음 알맹이를 입에 넣고 껌처럼 씹어 먹기도 했다.

소만에는 밀과 보리가 자라고 쫄레, 아카시아꽃 등의 꽃들이 피어난다. 또한 이 시기에는 씀바귀, 쑥갓 등 각종 나물을 해 먹는다. 특히 소만에는 죽순을 즐겨먹었다. 대나무로 크기 전 아주 짧은 시기에만 만날 수 있는 죽순은 누런색이다. 싹의 푸르름이 절대적인 여름에 누런 죽순이라니, 다소 어울리지 않지만 대나무로 크기 위해 모든 영양분을 먹고 누렇게 쑥쑥 자란다. 이 죽순을 잘라 먹으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준다.

내 마음의 등불 2 통리원장 인선 정사편

성직자가 되는길

하나,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으로도 다른 이를 해치지 아니하고, 이것을 자재하게 하는 사람은 세간의 스승으로 존경받는다.

하나, 생각이 과로음임을 이미 깨치고 이로부터 애욕을 모두 멸하여 그 무거운 짐 능히 벗어버리고 초연한 그 사람이 성직자이다.

하나, 적대하는 무리를 적대치 않고 폭력을 휘두르는 악한 무리를 평화롭게 선으로 대하는 사람, 그이를 스승이라 나는 부른다.

하나, 지혜로써 의심과 욕망 버리고, 집착과 불의 없이 바르게 살고, 중생의 삶과 죽음 모두 다 아는 깨달은 그 사람이 성직자이다.

하나, 과거도 내 것이라 가진 것 없고, 지금도 미래에도 없을 것이라, 무소유를 깨치고 집착이 없는 그 분을 성직자라 나는 믿는다.

하나, 그 가장 영웅적인 용맹으로써 모든 것 극복하고 남을 도우며, 마음이 확고하여 움직일 없는 그 이를 스승이라 나는 부른다.

-법구경(法句經), 불교총론 P305-

'내 마음의 등불'은 스승님들이 평소 마음에 새기고 계신 지혜와 말씀을 릴레이식으로 소개합니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께서는 다음 필봉 주자로 정각사 도신 정사님을 지목하셨습니다.

불교와 드라마

부모형제의 사랑, 무주상보시일까?

왜그래 풍상씨

KBS드라마 '왜그래 풍상씨'에는 극단적인 두 종류의 인물이 나옵니다. 풍상씨(유준상)와 노양심(이보희)입니다. 풍상씨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자신을 희생하는 인물이고, 노양심은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인물입니다. 풍상씨는 열여덟 살 때부터 동생들 뒤처다 끼리를 했는데 40대 중반인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으며, 그러는 과정에서 자신은 빈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시동생들 뒤처다끼리에 지친 아내를 이혼을 요구하고, 말썽 많은 동생들 때문에 간암까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풍상씨의 삶은, 자기를 완전히 연소하면서 자신을 내주는 삶입니다.

그러자 노양심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너는 애가 왜 그래냐. 그렇게 공치사를 하고 싶으냐”면서 가방에서 바카스를 꺼내 주면서 마시라고 합니다. 풍상씨의 말에 아무런 동요도 느끼지 않았습니 다. 죄책감이나 회한 정도는 느껴야 정상인데 그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노양심과 풍상씨를 비교하는 거 자체가 무리입니다.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 하면서 사는 삶과 가족을 돌보면서 사는 삶을 비교했을 때 후자에게 점수를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풍상씨가 동생들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무주상보시였을까, 진정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는 것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는 집착 없이 베푸는 보시를 의미합니다. 이 보시는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베풀었다’라는 생각 없이 베풀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남을 위하여 베풀었다’는 생각이 있는 보시는 진정한 보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내가 베풀었다는 의식은 집착만을 남기게 됩니다.

풍상씨의 동생들에 대한 희생을 무주상보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

지 않습니다. 풍상씨는 간암 진단을 받았을 때 동생들이 당연히 간을 줄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간을 이식해준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남은 여분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목숨을 나눠주는 일이라 간이식을 한 사람은 이전과 같은 건강상태를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간이식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당당하게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인데 풍상씨는 당연히 동생들이 간을 이식해줄 걸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의 밑바닥에는 동생들이 자신에게 채무가 있다고 여긴 까닭입니다.

엄마와 만난 장면에서 풍상씨가 울면서 했던 말은 그의 생각을 잘 보여줍니다. “엄마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하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고생했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 하지 못하느냐”고 했는데, 자신은 동생들을 위해서 정말 힘들게 살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코 무주상보시가 아니었습니다. 무주상보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집착이 있고, 그래서 동생의 삶에 관여를 합니다. 간이식을 해줄 줄 알았던 동생들이 의외 형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확대했다고 원망하고, 다른 형제와 비교했다고 하면서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를 들춰냈습니다. 이것은 풍상씨에게는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풍상씨는 그동안 자신이 동생들에게 많은 것을 주었다는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동생

들에게 상처도 주었던 것입니다. 간이식을 돌려받고 형제간의 감정의 골을 확인하게 됐고, 풍상씨는 그동안 자신이 채권자고 동생들은 채무자라고 생각했는데, 동생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채권자고 풍상씨를 채무자라로 여겼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드라마는 서로 간에 쌓인 오해를 풀고, 서로가

갖고 있던 채권 채무관계를 청산하고자 야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 다. 집착심이 없어지면서 상황이 나아진 것입니다. 집착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 이상이 될 수 없기에 결코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는 걸 드라마는 보여주었습니다.

<왜그래 풍상씨>에서 풍상씨와 형제들은 형제관계의 집착을 보여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부모와 자식관계에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자식이 갓난아기였을 때 부모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무주상보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커가면서 부모에게는 요구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자신의 희생에 대해 알아달라는 마음도 생기고,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집착심도 생기고, 이런 감정은 결국 모두 원가를 줬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무주상보시가 아닌 희생은 결코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보다 나은 부모와 자식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주어도 줬다는 생각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주상보시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기고가=김은주>



불교총지중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3월 21일 ~ 4월 20일까지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한 기여입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중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개천사	전세형	4/5	30,000	백월사	신운산	3/27	10,000	지인사	승효제	4/3	10,000
관성사	인선	3/25	20,000	법천사	반야심	4/1	10,000	총지사	원당	4/9	10,000
	황성녀	3/26	10,000	법향사	유승태	4/9	10,000		묘심해	4/9	10,000
기로스승	상지화	3/25	10,000		사원명 무기명	박미경	4/18		10,000	손경옥	4/15
	수증원	3/25	10,000	실보사		정상철	4/15		10,000	최영아	4/15
	밀공정	3/25	10,000		실지사	오순자	4/15		90,000	무명씨	4/16
	총지화	3/25	10,000	운천사		김갑선	4/19		10,000	박정희	4/16
	법수원	3/25	10,000		일원어린이집	이순옥	4/4		10,000	이수경	4/16
	선도원	3/25	10,000	포레스타7어린이집		박병성	3/28	20,000	신용도	4/16	10,000
법지원	3/25	10,000	함원햇살어린이집		조성우	4/2	10,000	최유정	4/8	50,000	
일성혜	3/25	10,000		정각사	유승우	4/10	10,000	무명씨	4/2	10,000	
불멸심	3/25	10,000	말인사		정경자	4/10	10,000	우인	4/3	10,000	
사홍화	3/25	10,000		정각사	운천사	무명씨	4/17	50,000	보명심	4/3	10,000
안주화	3/25	10,000	정각사		하재희	3/25	50,000	강승훈	4/10	5,000	
진일심	3/25	10,000		정각사	김지영	3/25	10,000	최영미	4/10	50,000	
법선	3/25	10,000	정각사		구미자	4/1	10,000	강승민	4/10	5,000	
김진화	3/26	20,000		정각사	김선희	4/10	50,000	무명씨	4/10	20,000	
탁상달	4/12	20,000	정각사		신말심	4/2	20,000	홍국사	지정	4/3	20,000
정정희	4/1	5,000		정각사	안한수	4/8	10,000				
정우석	4/11	20,000	정각사		변순개	4/16	10,000				

신정회 People ①

한결같은 마음으로 불공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 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저 먼 발치서 가수 노사연의 ‘바람’이라는 노래 가락이 들려 왔다. 문경새재를 따라 내려오는 계곡물 소리보다 힘찬, 새소리보다도 더 또렷한 목소리였다. 햇빛의 향연보다도 먼저 계곡을 굽이굽이 휘감고 있었다. 어느 여인의 솔깃한 가락이 봄별 만개하는 하늘 푸른 맑은 봄날을 이리저리 애절하게 만들 수 있던 말인가.

돌아보니 우리 총지종 스승님들과 교도들 몇 분이 문경새재 관북 후 정자에 둘러앉아 침을 청하고 있는 자리였다. 그중에 노래를 부르고 계신 분은 신정회 충청전라지회 만보사 민순분 회장님이셨다.

“회장이라고 통신원 워크숍을 오긴 왔는데, 나는 글을 잘 쓸 줄도 모르고, 돌아가서도 뭘 해야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도 이렇게 한 번 다녀가면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열심히 따라 다녀요.”

올해로 77세를 맞이하신 민순분 회장님은 대전 만보사 36년 차 배태량 교도이시다. 나이 마흔에 남편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혼자 자식 넷을 키우셨다. 아이들은 막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6학년, 중학교 2학년이 된 3월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다른 절에서 49재를 지냈어요. 그런데 기도가 끝난 후에 도 영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만보사 교도가 같이 가져다 해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 내가 진작 이곳에서 불공을 했다면 남편의 사고도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승 매느리로서 시어른을 모두 모시며, 자식 넷을 키우려니 하숙을 열게 되었다. 방이 많은 것도 아니어서 방 하나에 자식 넷을 몰아넣고 역척같이 세월을 보내면서도, 오로지 불공으로 이겨내셨다.

민순분 회장님은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깨 수술, 다리 수술,



충청전라교구지회 민순분 지회장

목수술 두번 등 민회장님 스스로는 온 몸을 리모델링했다고 표현하시지만, 한결같은 불공으로 오랜 인고의 세월을 버텨온 내공 덕인지 얼굴은 밝고 늘 유쾌함을 잃지 않으셨다.

아프리카 속담에는 ‘어른 한분이 사라지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어른 한분이 지혜와 경륜이 후세에 들려주는 가르침이 얼마나 큰 것임을 알려주는 뜻이다. 민순분의 회장님의 늘 불공하는 삶은 젊은 교도들이 험난한 세월을 이겨나는데 불공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몸소 알려주고 계신 것이다. 문경새재는 웬 고갯길, 구비야 굽이굽이가 눈물이 난다(진도아리랑 중)지만, 민순분 회장님의 인생 곡절에는 눈물 대신 ‘바람’과 ‘불공’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보내드리기에도 모자라다.

<문경=박재원 기자>

통신원 워크숍을 다녀와서



통리원 제2기 감수위원으로 역할을 부여 받고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위원으로서의 성실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을까 스스로 질문하고 있었다. 때마다 감수위원회와 총지종보 교도 기자단 격인 전국 통신원이 함께하는 워크숍이 진행되다가 그 고민을 잠시나마 미룰 수 있었다.

4월12일 문경에서 1박2일 간 참여한 통신원 워크숍은, 처음 참여하는 나로서 가질 수 있는 머릿속의 상상 보다 훨씬 알찬 프로그램과 참여자들의 열

린 모습에 종단의 승자로서 걸음으로 표현할 수 없는 자긍심과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감수위원들과 통신원들은 새벽부터 나섰을 터인데, 누구하나 피곤한 기색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워크숍에 열중했다. 입제식을 시작으로 하여, 총지종보 박재원 편집국장님의 ‘기사 잘 쓰는 통신원 되기’는 나의 강의라기보다는 신문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쉽고 재미를 함께 주는 놀이와 같은 시간이었다. 휴식시간을 이

용한 현일 정사의 크로마하프는 연주는 마치 우리를 잠시 강의실 밖 봄 길로 안내하는 듯했다.

이선희 실장의 활동보고 시간에는 그동안 열심히 활동해온 통신원들에 대한 감사 시상과 의견 교류가 있었다. 나만 모르고 있는 사이, 우리 교도들이 곳곳에서 열심히 종보를 만들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참가자들을 위해 ‘정각다도회’에서는 다도 시연을 위해 다식은 물론 다포까지도 일일이 직접 만들어 오는 대단한 정성을 보였다. 한사람 한사람 모든 참여자가 자기 자리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준비한 자신의 내용으로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이 참으로 감동적이었다.

프로그램 후 통신원들을 위로하고 감수위원회가 따로 열렸다. 드디어 내에게는 감수위원으로서 새로운 의욕과 다짐을 불러일으키는 시간이었다.

<문경=자성 전수>

소통하는 통신원,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통신원

통신원 워크숍, 우수 활동 통신원 선발



정각사 한미옥, 단음사 권순복, 총지사 최혜선 통신원(사진 왼쪽부터)이 지난 4월12일, 13일 문경에서 개최된 총지사 워크숍에서 기간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통신원으로 선발되었다. 교정부(부장: 승원 정사)에서는 통신원 워크숍을 계기로 활동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상품권을 수여했다.

정각사 신정회, 삼량진 만어사 봄나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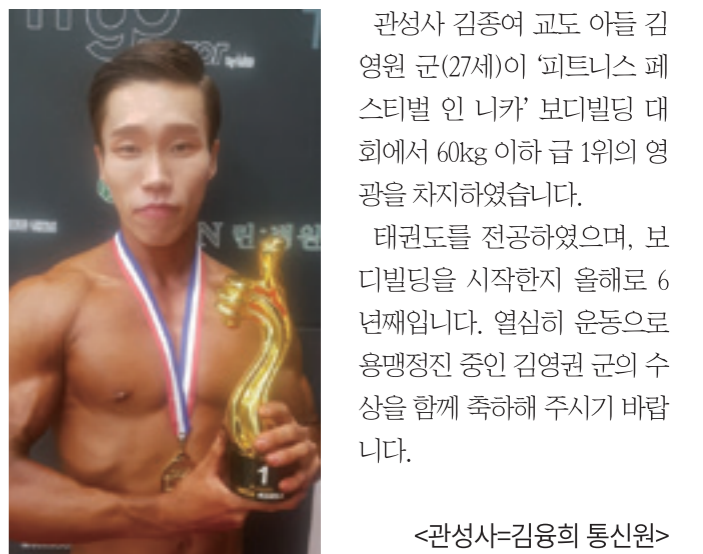
정각사 봄나들이 소식입니다. 저희 정각사 스승님, 각자님, 보살님들은 관광버스 두 대를 나누어 타고, 지난 4월15일 삼량진 만어사를 참배 후 우리나라 최대 유채 꽃밭 중의 하나인 창녕 남지 유채밭을 다녀왔습니다. 날씨도 바람도 모든 분들의 마음처럼 맑고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정각사=한미옥 통신원>

벽룡사 신정회 새 회장, 총무 선출



벽룡사 신정회는 지난 4월 14일 새 회장으로 양재범 각자님과 총무에 조귀자 보살님을 선출하였습니다. 양재범 회장님은 “스승님들께 수순하고, 신도님들이 잘 화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며 소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오신 오미순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벽룡사=조귀자 통신원>

관성사 김영원, 보디빌딩 대회 1위



관성사 김중여 교도 아들 김영원 군(27세)이 피트니스 페스티벌 인 니카 보디빌딩 대회에서 60kg 이하 급 1위의 영광을 차지하였습니다. 태권도를 전공하였으며, 보디빌딩을 시작한지 올해로 6년째입니다. 열심히 운동으로 용맹정진 중인 김영원 군의 수상을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성사=김영희 통신원>

총지스케치

김흥균 작가

봉축 부처님 오신 날

고맙습니다

불교총지종 전국 통신원 워크숍을 위해 보시해주신
신정회 서울경인지회 김은숙 회장님과
관음사 신정회 김흥옥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참된 나라를 찾는 여행

제6회 청소년 바른인성 형성 프로그램

모집기간 기간 중 1박2일 선택

2019. 4.20-7.25

모집대상

- 초등학생 (3학년이상), 중·고등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 (선착순)
- 팀으로 참가(4-8명)

여행계획시 필수조건

여행장소는 자유롭게 선정하되, 아래와 같은 일정을 포함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명상시간
- 인생의 교훈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스님, 향토사학자, 지역명사 등)과의 만남의 시간
- 멘토와의 대화 시간

주최 불교총지종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마음 愛 자비를! 세상 愛 평화를!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를 서원합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불교총지종

원정대성사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실천밀교를 흥포하고 있습니다.

❁ 불기 2563년 봉축 범요식 ❁

일 시 | 총기 48년 5월 12일 오전 10시

장 소 | 불교총지종 전국 사원

❁ 불교총지종

